

광주지방변호사회장 선거, 20년만에 경선하나

수석부회장 단독출마 찬반투표 관행...내달 선거 앞두고 2명 출마 관심 사시 출신 하재욱-로스쿨 김철수 출사표...지역법조계 환영·우려 교차

올 연말로 예정된 광주지방변호사회장 선거가 20년만에 경선으로 치러질 것으로 전망돼 지역 법조계가 술렁이고 있다.

출마를 공식화한 후보 변호사 두 명이 사법시험 출신과 변호사시험 출신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타 지역에서는 로스쿨 출신이 지방변호사회장에 당선된 사례가 있지만, 광주에서는 아직 없기 때문이다.

6일 광주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다음달 9일 제 58대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가 치러진다.

회장 후보 등록일은 오는 25일이지만, 현재 출마를 공개 선언한 변호사는 하재욱(52·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와 김철수(47·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 등 두명이다.

1948년 광주지방변호사회가 창설한 이래 회장 선거를 경선으로 치른 건 1998년(제44대)과 2004년

(제48대) 두 차례 뿐이다.

광주지방변호사회 선거는 수석 부회장이 단독 출마해 찬반투표를 진행하는 방식이 관례였다.

하지만 올해는 현재 수석 부회장인 하 변호사 이외에 현 공보이사인 김 변호사가 출사표를 던져 20년만의 경선이 예상되고 있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우려와 환영의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다.

일부 원로 변호사들은 20년전 경선에서 지지 후보자별로 지역법조계가 갈려 갈등과 후유증이 깊었다는 점을 꼽고 있다. 갈등과 반목이 재현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젊은 변호사들은 기존 회장 선거가 일종의 대물림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선구도를 반기고 있다.

하 변호사는 광주 송원고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을

거쳐 검찰에서 십수년간 근무를 하고 퇴직해 네트워크 로펌에서 활동하다 최근 개인 사무소를 열었다. 김 변호사는 진흥고 졸업후 기자로 활동하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을 나와 법조계에 발을 들였다.

변호사 업계에서는 두 변호사의 이력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하 변호사가 선출되면 사법시험 명맥유지, 김 변호사가 뽑히면 로스쿨 출신의 세대교체라는 것이다.

광주지역 법조계는 전국에서 최초로 여성 지방회장(제55대 임선숙 회장)을 배출했지만, 아직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회장을 지낸 적이 없다.

지난 2022년-2023년 치러진 전국지방변호사회 선거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 김정옥(46·변시 2회) 변호사,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정지용(50·변시 1회) 변호사, 충북지방변호사회 양원호(60·변시 1회) 변호사 등 3명이 로스쿨 출신으로 회장으로 당선됐다.

장기 불황으로 수입이 어려워진 법률 시장에서 변화보다는 안정적인 흐름이 중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법조인 양성통로가 로스쿨로 일원화되고 변

호사 배출인원도 늘면서 이같은 현상이 자리잡게 됐고 광주에서도 세대교체가 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6일 기준 현재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원은 총 606명이다. 휴업 중이거나 준회원을 제외하고 활동하고 있는 현직 변호사로 선거 15일 전 까지 회원 자격을 유지하는 변호사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확한 인원은 확인되지 않지만, 지역 법조계에서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절반을 넘긴 것으로 보고 있어 올해 회장선거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 변호사는 "아직 공약을 구체화 하진 못했지만, 기존 광주지방변호사회의 역점사업을 더욱 다지고 지역 변호사들의 복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완주 의사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지역 법조계도 최근 일명 '네트워크 로펌'의 확산으로 위기가 깊고 있어 법조시장 교란과 잠식을 우려해 출마를 하게됐다"고 출마의 입장을 밝혔다.

한편 광주지방변호사회장 임기는 2년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공사장 기사 쓰겠다" 금품 뜯은 주간지 대표·기자 등 13명 검거

건설현장에서 법 위반사항을 꼬투리 잡아 "기사를 쓰겠다"며 금품을 뜯어낸 주간지 대표와 인터넷 신문 기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한 주간지 대표와 기자 등 2명을 구속수감했다고 6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인터넷 신문 등 8개 언론사 기자 13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이다.

이들은 2020년 2월부터 지난 8월까지 전남 지역 건설현장을 비롯해 경남, 경기도 등 전국 공사현장을 돌아다니며 폐기물 처리 등 위법적인 사항을 기사화할 것처럼 협박하는 등 76차례에 걸쳐 1억800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2명은 위반 사항을 촬영해 공범에게 전송하고, 공범은 기사를 작성해 피해자에게 전송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했다고 조사됐다.

경찰은 건설현장에서 피해 사실을 확인하다 이들을 적발했다. 피해자들은 공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두려움에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병호 기자 jusbh@

영화 '기생충' 처럼...학력·경력 속이고 고액과의

광주지법, 징역 1년 2월 선고

영화 '기생충' 처럼 학력과 경력을 속이고 고액 불법 과외교사로 활동한 남성이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판사 나상아)은 6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학력·경력을 속이고 무려가 고액 과외 강습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학생 6명에게 불법 과외 수업을 해 총 87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A씨는 자녀의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과외를 원하는 학부모들에게 접근해 고액 과외를 했다.

일부 피해 학생들은 수업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누범기간에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자녀 성적 향상을 원하는 학부모를 속이고 미신고 불법 과외를 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해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받던 중에도 불법 과외를 이어간 점, 일부 수업은 정상 경력을 가진 교사가 진행한 점을 두루 고려했다"고 실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수능 앞둔 학부모 간절한 기원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을 일주일 앞둔 6일 광주시 서구 무각사 대웅전에서 수험생 학부모를 비롯한 불자들이 예불을 드리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사기 혐의 전 대학교 총장 2심서 벌금형 감형

징역 1년→벌금 1500만원

사기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남 모 대학교의 전 총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영아)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직 총장 A(7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1년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월께 순천의 한 호텔에서 피해자를 속여 3억 1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에게 "내가 대학 총장으로 재직할 때 배임죄를 저질렀는데 학교 측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일본에 수백억원 재산이 있고 학교 운영권도 200억원에 팔 수 있다"며 돈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1심 재판부는 "A씨가 일본에 별다른 재산이 없고 많은 채무가 있어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면서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상환하는 3억 2000만원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가로챈 금액이 3억원이 넘고 배임죄에 대한 누범기간 중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모두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감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등록금 등 6억 4697만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2018년 광주고법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절도 신고 앙심...편의점주에게 흥기 휘둘러

광주 광산경찰, 50대 구속

자신의 범행을 신고한 편의점주에게 흥기를 휘둘른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광주 광산경찰은 50대 남성 A씨를 보복상해 혐

의로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새벽 2시 10분께 광주시 광산구 한 편의점에서 점주 B씨에게 흥기를 휘둘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편의점에 찾아가 물건을 계산하는

척하면서 가방에서 미리 준비한 흥기를 꺼내 들고 점주에게 휘두른 뒤 도주했다. B씨는 얼굴에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지난 5월 해당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다 B씨가 신고해 벌금형을 받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교신문에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순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충분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